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
서울시 중區 德水洞 3街 26
電話交換 8131-9
本社直線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681
경북 경주시
서강동 707번지
전화 경주 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佛敎聖典
도(道)를 구하
는자는 萬善을(善
)입(入)·뜻(德)
)의 세가지행을(行
)을 실천할것을
마음에서
없으면 안된다.
<佛敎聖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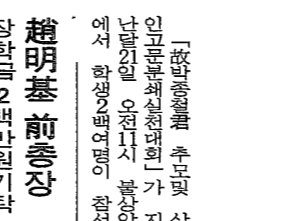
86학년도學位수여식 거행

25일 새 學士 3천1백8명 배출



▲趙明基 前총장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趙明基 前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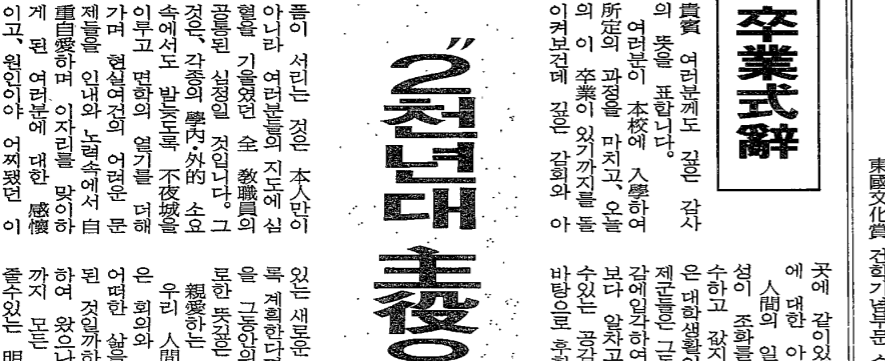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殺人拷問문제 실천대회

단체합 故박종철君 추모제 열어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李智冠總長 卒業式辭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2천년대 養育의 新시기를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한국佛敎전서 1발간 朝鮮篇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故梁柱東先生 十周年追悼 기념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新入生 경쟁률 5對1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同窓會 사무국 이전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佛敎聖典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法人事務局人事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職員人事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圖書

【경주특보】 동국대학교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주캠퍼스 대강당에서 86학년도 학사 수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趙明基(趙明基) 전총장과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이 참석했다. 수여식은 趙明基(趙明基) 전총장의 주례로 진행되었다. 수여된 학사 수는 총 3,118명이다.

“濁世의 연꽃으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 아니었던가”

기울어가는 나라의 한줄기 빛으로
순수한 민족의 정제(淨財)를 모아
「교육구국」의 배움터 이루었나니

명진학교의 그날로부터 80년!
1906년 개교이래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절진」을 지표삼아 우리 민족 근대사의 수장은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역사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학으로 사명을 다 해온 동국대학교!

영욕의 생생한 모습 - 「사진으로 본 동국대학교 80년」 발간!

여기 가장 밝은 눈을 뜨고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요자 했다. 동국 80년의 생생한 기록이 모아졌습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교 8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발자취를 재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한 윤리 미학의 감각이나 추세가 아니라 모든 불교계, 내외교인 및 민족 전체의 감각이며 기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동국 80년사의 어제의 오늘을 회고함에 있어 때로는 행동의 양면으로 때로는 눈물과 지혜로 때로는 이성과 양심으로 감춰져온 수많은 현장들을 생생으로 복수 있는 사진으로 본 동국대학교 80년을 정리한 「사진으로 본 동국대학교 80년」(216쪽, 146페이지, 고급양장본)을 발간합니다. (문의: 동국대총무처)

●12장판, 146페이지, 고급양장본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전화 267-8577, 267-8131-9, 2194)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現實과 理想의 조화

현실과 이상의 조화

현실과 이상은 항상 대립하고 있다. 현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반하여 이상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긴장하고 있다. 현실이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은 점차 이상에 가까워지고, 이상은 현실을 향하여 구체화된다. 이 긴장 속에서 현실과 이상은 조화를 이루고 발전한다.

사회에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상(空想)에 불과하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실을 개선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올바른 길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조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현실의 제약과 장애를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실을 개선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올바른 길이다.

우리나라 福祉政策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정책은 아직 미흡하다.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소득보장(所得保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예산의 증액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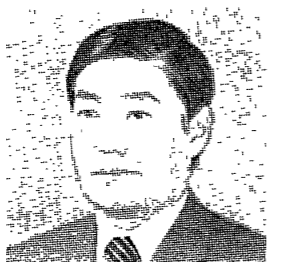
福祉 "정치적공극적目的"

福祉

사회에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은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상(空想)에 불과하다.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실을 개선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올바른 길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조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현실의 제약과 장애를 극복하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현실을 개선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올바른 길이다.

「社會福祉士」등 전문인력 活用을 위한 實例의 私有化 活用방안 具體적 實現



김준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부족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는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과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복지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복지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協力으로 해결해야

복지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과 시민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복지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大學問話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대학생활은 학문적 탐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또한, 타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인내력과 끈기를 기르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장학안내

다음 장학해당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과에 제출, 장학수혜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및 구비서류
가)보훈장학 신규 해당자: 성적증명서 및 국가유공자녀 증명
나)복학생 중 계속장학 해당자: 복학허가원, 성적증명서 및 관계해당서류
다)교원자녀 재학생으로 장학미수혜자: 시군교육청장 발행학비감면원

2. 장학생구비서류 제출기간
가)재학생: 동복기간중
나)복학생: 복학허가 당일부터 동복기간중

1987년 2월 일

학생처장

1년동안 편의를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DIARY

2월 23일 3쪽

주요수혜대상
●1987~1988년 카렌다 ●서울·경주캠퍼스 화보
●학사일정 ●휴일행사일정 ●월·요일·휴일
●개교10주년 ●교과목 ●공부방법 ●취업정보
●원로회소속 ●교외행사 ●유리나리기도 등

□구입처: 서울·경주캠퍼스 구내패밀리점 구내서점

〈학생처 제정〉 학자금대출을 받으신 학생여러분에게!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지 않으시고,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

1. 상환방법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법
단기차관	1년 이내	매월 1회 상환
중기차관	2년 이내	매월 1회 상환
장기차관	3년 이내	매월 1회 상환

2. 학자금대출을 연체하지 않으신 학생여러분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4.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는 학과별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5. 학자금대출을 연체하고 계시는 학생여러분에게는 학과별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병사 지침 안내

1. 수검원 및 입영소집의 출원
2. 학적변동자 처리
3. 교원교육 이수자의 군복무 단축처리
4.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 제한자

5. 학생처장

납입금 수납안내

1987학년도 제1기분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납입하기 바랍니다.

아 래

- 수납기간: 87년 2월 26일—87년 3월 7일 (10일간)
- 수납은행: 한일은행, 국민은행 전국 각 지점
- 수납방법
 - 학교에서 우송된 고지서로 납입하여야 함.
 - 장학금 수혜자 중 고지서로 납입금액이 감액 처리된 학생은 수납은행 전국 각지점에 납입할 수 있으나, 장학금 지급의 의의가 소지되고 고지서로 납입금액이 감액 처리되지 않은 학생은 별도로 지정된 수납은행에서 고지서를 감액수정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별도지정 수납은행〉
서울캠퍼스: 한일은행 학수지점, 국민은행 송파지점
경주캠퍼스: 한일은행 경주지점

3. 전산처리되어 우송된 고지서외에는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학과, 학번, 학명, 성명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수납이 완료된 학생은 학교 경리과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4. 유의사항
① 전산처리된 납입금 고지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 오송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② 수납기간이 경과되면 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기간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③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 경리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1987년 2월 일

총무처장

필리핀의 농업과 토지개혁의 전망

필리핀의 농업은 80%의 농민이 소작농인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토지개혁은 1953년 7월 20일 제정된 토지개혁법(Republic Act No. 1103)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법은 소작농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고, 토지주에게는 5%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소작농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이들은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땅을 일구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개혁은 필리핀의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토지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토지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필리핀의 농업과 토지개혁의 전망

비, 통치자... 말, 만의 농지개혁



필리핀의 농업과 토지개혁의 전망

필리핀의 농업은 80%의 농민이 소작농인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토지개혁은 1953년 7월 20일 제정된 토지개혁법(Republic Act No. 1103)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법은 소작농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고, 토지주에게는 5%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소작농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이들은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땅을 일구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개혁은 필리핀의 농업 생산을 증진시키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농업개혁의 비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잔존

농민들의 토지소유권 포함할 수 없는 경제적 본태가 원칙

필리핀의 농업은 80%의 농민이 소작농인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토지개혁은 1953년 7월 20일 제정된 토지개혁법(Republic Act No. 1103)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법은 소작농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고, 토지주에게는 5%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소작농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이들은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땅을 일구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와의 선택의 차이

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제도적 병폐였다. 필수가 선택으로 바뀌어졌다 해도 실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별다른 대안이 없다. 사물을 끌어들이는 사람만이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 선택의 기회는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선택하는 자는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 선택하는 자는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

대학생 전방교육의 개선은 학생운동 불시제거의 苦肉策

필수와의 선택의 차이는 시대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제도적 병폐였다. 필수가 선택으로 바뀌어졌다 해도 실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선택하지 않으면 별다른 대안이 없다. 사물을 끌어들이는 사람만이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 선택의 기회는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선택하는 자는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 선택하는 자는 선택의 기회를 얻는다.

담당주체의 참여없이 근본개혁 어려워

필리핀의 농업은 80%의 농민이 소작농인 상태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토지개혁은 1953년 7월 20일 제정된 토지개혁법(Republic Act No. 1103)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법은 소작농에게 토지소유권을 부여하고, 토지주에게는 5%의 임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소작농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이들은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땅을 일구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고,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pæntilainərs]

깨끗한 여성을 위한것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에게는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만 되면 벌레 팬티가 축축해지고 얼룩도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배란기, 임신전후, 피임제 사용시에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럴 때 팬티 안쪽에 '후리덤 팬티라이너'를 살짝 붙여주세요. 그리고 하루 서너번만 갈아주세요. 하루종일 기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다 아는 것. 다 쓰는 것.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철대 '후리덤 팬티라이너'입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 평상시 분비물을 흡수하여 항상 보수보습한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 배란기, 피임제 사용시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중 팬티교환이 어려운 경우에 편리합니다.
- 생리전후와 끝날무렵에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

* 이는 미국 킬빌라-클라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 REGD. TRADEMARKS KIMBERLY-CLARK CORP. U.S.A

